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3.(화) 11:00 이후(11. 4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11. 3.(화)

서울-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

- 4일 착수보고회, 민간 전문가·지방정부 참여해 공정성·투명성 확보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홍지선)는 '23년 7월 이후 중단된 **서울-양평 고속도로***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**신규 타당성 조사**에 **착수**하고,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.

*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km,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

○ 정부는 **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**을 통한 **국민 편의 증진**과 **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** 등을 고려해 **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**을 확정했다.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,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(6월) 및 계약 체결(8월)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.

□ 이번 **신규 타당성 조사**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며,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**원점에서 전면 재검토**하고, **장래 교통수요**와 **기술적 타당성**, **경제적 효과**, **환경·사회적 영향**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**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**을 **마련**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조사 과정의 **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**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**민관 협의체를 구성·운영**한다.

○ **협의체**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**도로·교통·환경 분야 전문가**와 **서울시, 경기도, 송파구, 하남시, 광주시, 양평군** 등 **관계 공무원**으로 **구성된다.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**으로 **공유**하고 **전문가** 및 지방정부의 **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.

□ **11월 4일** 보고회에서는 **기초자료 조사 결과**,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**기술적 쟁점** 및 **향후 조사계획** 등을 검토하고, **조사 추진 방향**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**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** 등은 조사 과정에서 **면밀히 검토**하고, **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**도 민관 협의체와 **지속적**으로 **협의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“서울-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, **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**를 통해 **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**하겠다”라며,

○ “사업 지연에 따른 **국민 불편**을 **최소화**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**후속 절차**도 **신속**하게 **진행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오요셉	(044-201-388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